

# Artist

**Artist** \_ Metal Craft

Jo sooj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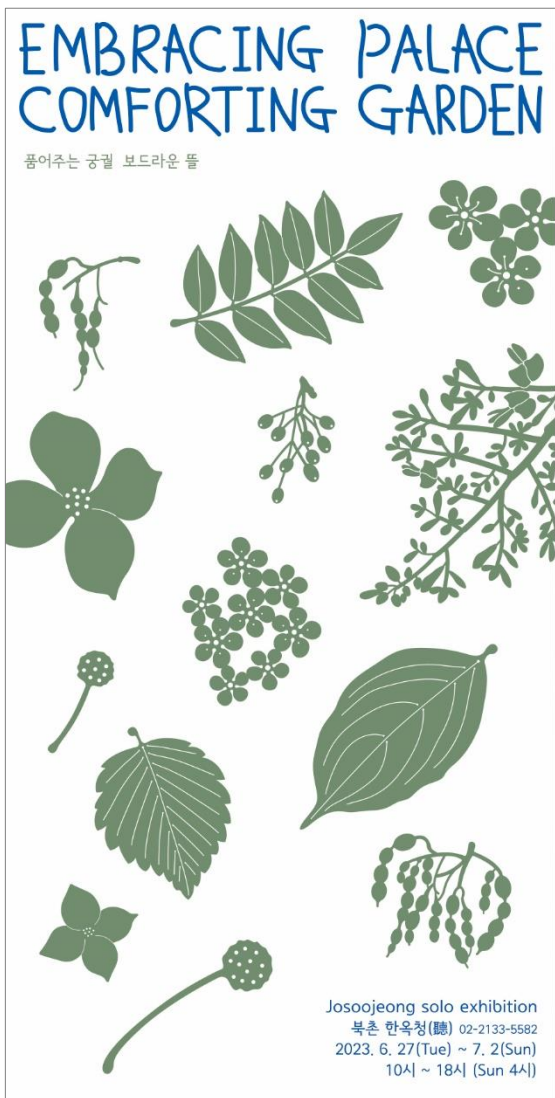
# Artist

## Artwork

조수정은 인체 모티브로 시작하여  
꾸준하게 사람과 자연을 관찰하고 바라보며  
그 온기를 담아 금속조형 작업으로 표현합니다.

더불어 전시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연결하는 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23 개인전 [ 품어주는 궁궐. 보드라운 뜰 ]



## 작가노트

하늘을 올려다 바라본 투명한 초록은 소란스러운 마음과 금새 바뀌준다.

눈에 가득 채운 풍경은 휴식이고 위로다.

[품어주는 궁궐. 보드라운 뜰]은 하늘아래 자연속의 이야기로, 모두의 쉼이 있는 궁궐 정원을 포근함으로 담아 함께 쉬어 가자고 함이다.

찬란한 도시에서 잘 지켜내 변하지 않은, 오랫동안 그곳에 그대로 있는, 뚝 떨어진 듯한 도시숲을 관찰한다.

피어나고 진 꽃, 새 이파리와 떨어진 잎, 붉게 물든 열매와 날아드는 씨앗, 눈이 쌓인 가지와 줄기, 꽃눈과 잎눈... 고요함속에서 주의 깊게 지켜볼 수 있도록 속도를 충분히 늦춘다.

왜 그랬을까?

함께라는 말속의 나 자신은 더 이상 이전의 개인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 되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고, 그 하나는 자연 자체이기도 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고, 그 존재의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연하고도 평범한 진리를 알아차리면서다.

연주하는 바람, 투명한 초록, 재잘대는 물, 춤추는 언덕. 소리나는 공기, 수줍은 풀, 숨은 그림 새, 산책의 소리..

궁궐 속 자연을 품에 안은 우리 정원은 선조들의 철학과 예지가 담겨있다

그 뜰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마음으로 즐기기 위해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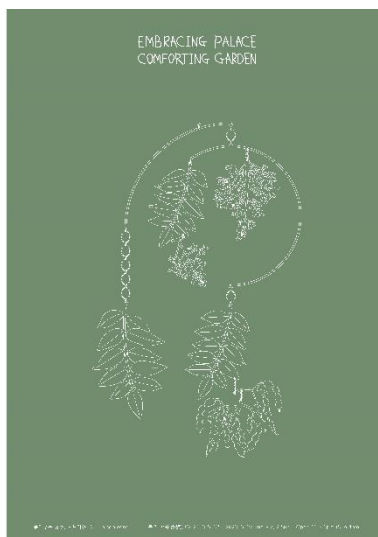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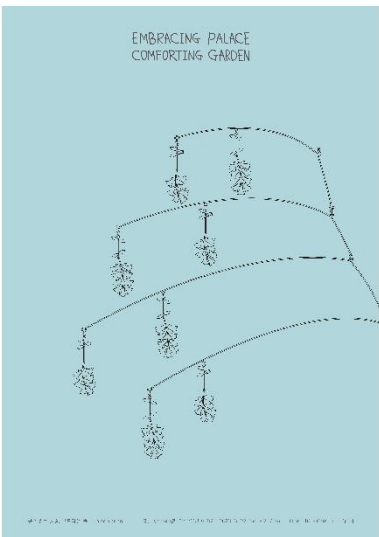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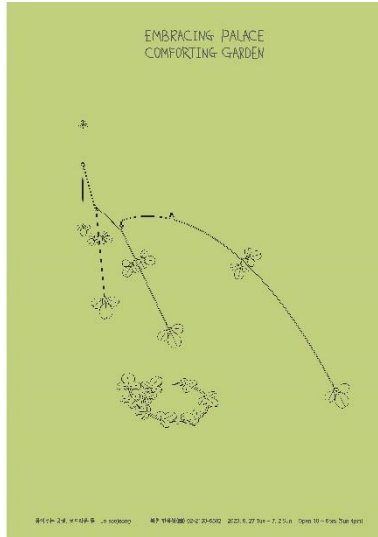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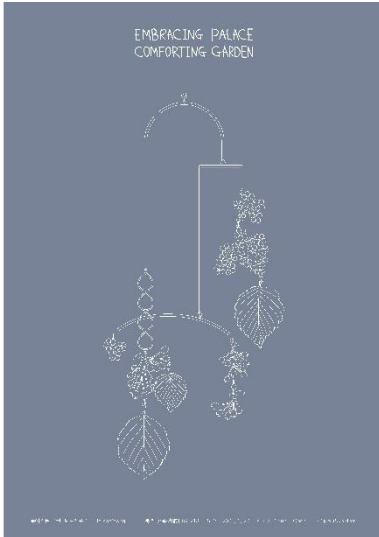
뜰의 나무처럼 단단함과 겸허함 누구나 같은 속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유연함을 한 그루 모빌에 담아 일상에서 즐긴다.

모빌은 공간에서 느린 움직임으로, 부딪침의 소리로, 반사되는 햇살로 모양을 더한다.

저마다 갈아 보이던 나무들은 이름처럼 다 다른 모양새다. 섬세하고 작은 하나 하나의 모습들은 있는 그대로 장신구다.

일상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만나는 자연이, 위로와 함께 참다움을 선물하기를 기대하고, 잠시 멈춤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알아차리기를 바라며, 읽고, 잇는 마음으로 따뜻한 관계를 가지길 전하고자 한다.

## • 전시내용



### 표정을 품고 있는 나무, 그 하이퍼리얼리티

-내가 월든 호수에 사는 것보다 신과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는 없다. 나는 나의 호수의 돌 깔린 기슭이며 그 위를 스쳐가는 산들바람이다. 내 손바닥에는 호수의 물과 모래가 담겨 있으며,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내 생각 드높은 곳에 떠 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명저 <월든>의 서문이다. 여름이 막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품어주는 궁궐, 보드라운 뜰> 전시회의 작가 조수정도 소로우의 이상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소로우의 자연이 '월든' 호수였다면, 조수정에게 자연은 궁궐의 나무로 바뀐 것일 뿐.

조수정이 추구해온 예술의 화두는 '사람'이다. 사람의 몸짓과 표정이 빚어내는 찰나를 예리하게 포착함으로 인간을 읽어내는 성찰을 거듭해온 것이 그의 예술관(藝術觀)이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곡선의 움직임은, 철, 옥, 석 등의 광물로 극히 단순화시켜 여백의 미와 함께 담백함을 더했다. 이토록 무채색인 듯 보이지만 그가 빚어낸 금속 특유의 자체 발광은 오브제 깊숙이 웅크리고 있다가 은밀한 도발로 행간에 번뜩이곤 한다.

그러한 작가의 예술적 감각은 이번 전시에도 여지없이 그 빛을 발한다. 작품 콘셉트와 구상을 위해 작가는 고궁 뜰에서 사계절을 거닐었다. 옛 궁궐의 고즈넉함 속에 초연함과 무심함으로 붙박인 나무들은 궁궐의 지킴이를 자처하며 세월을 휘감고 있다.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가지를 뻗어 올리며 잎과 꽃과 열매로 말간 민낯을 하나씩 드러낸다. 거기, 그곳에 작가의 예리한 감각이 등지를 튼 것이다.

... 종략

- 소설가 이선영 (Lee sun young)

• 작품사진



- 작품사진



• 작품사진



• 작품사진



- 작품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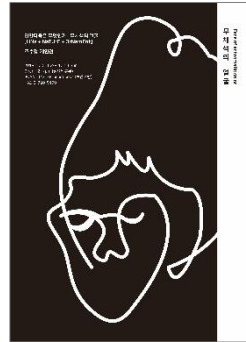


• 작품사진



춤추는 언덕 Bashful grass\_ Stabile \_Brass, iron \_2023

• 2019 개인전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_무채색의 얼굴 [ LiNe + NaTuRe + OrNam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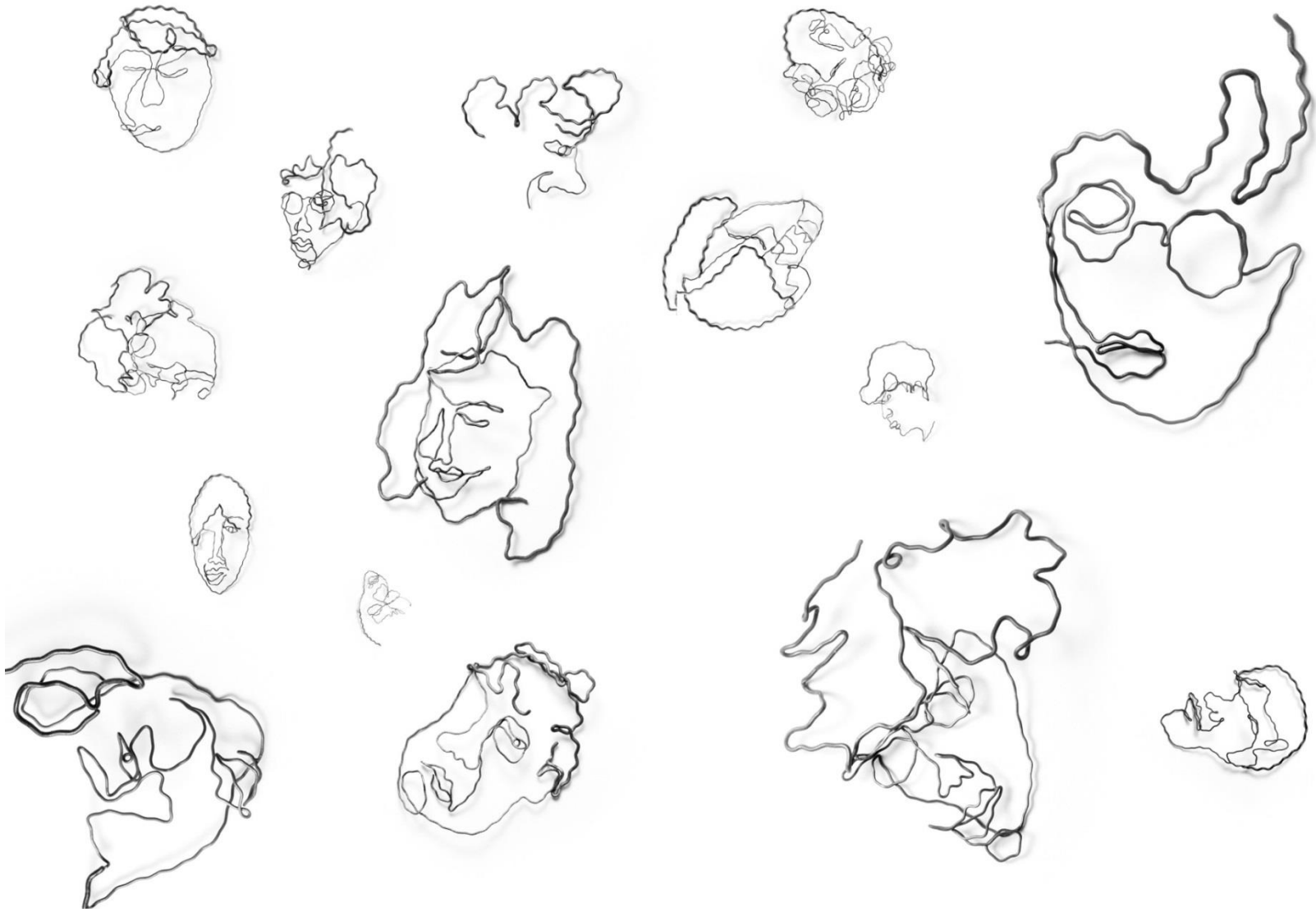
**무채색으로 '낯설게 하기'**

'무채색의 얼굴'은 무표정이 아니다. '무채색의 표정'이다. '무채색'이라는 강렬한 표정이다. 그 무엇도 겉으로 표출하지 않은, 강렬한 내면의 표정이다. 내면의 표정은 응시와 갈등과 다짐과 함축의 복합감정이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_무채색의 얼굴>展은 조수정 작가의 <사람을 담다> 시리즈 연작이다. <사람을 담다>展에서는 점과 선만으로 인체의 원초적 운동성을 무심하게 표현하였고, <천 개의 얼굴, 담다 - 닦다>展에서는 사람의 얼굴, 천 개의 표정에 묻어나는 사회와 세속의 '실루엣 silhouette'을 통찰하였다. 이번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_무채색의 얼굴>展에서는 '표정의 수'를 확 줄였다. 조수정이 주목하는 표정은 소리 없는 표정이고, 온기 없는 표정이며, 소외의 표정이다. 그래서 '무채색의 얼굴'이다.



• 작품사진



• 작품사진



• 작품사진



• 작품사진



• 작품사진



• 2017 개인전 [ LiNe + NaTurE +OrNamEnt ] 천개의 얼굴, 담다-답다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태어나서 돌아가기까지 인생이라는 화두話頭를 붙들고 살아간다.

존재와 자아,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뫼비우스의 띠를 이룬다.

간결한 드로잉 선을 빌려 대상으로서의 인간, 관계 속의 개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드리운 무채색의 심상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천 개의 얼굴'은 불특정 대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군상이다.

다양한 '익명의 우리들'이다. 그 얼굴들을 보면서 삶을 읽어본다. 어떤 의도도 목적도 없이 무심코 바라보기를 통해 이 시대의 '얼굴 기호'를 읽어보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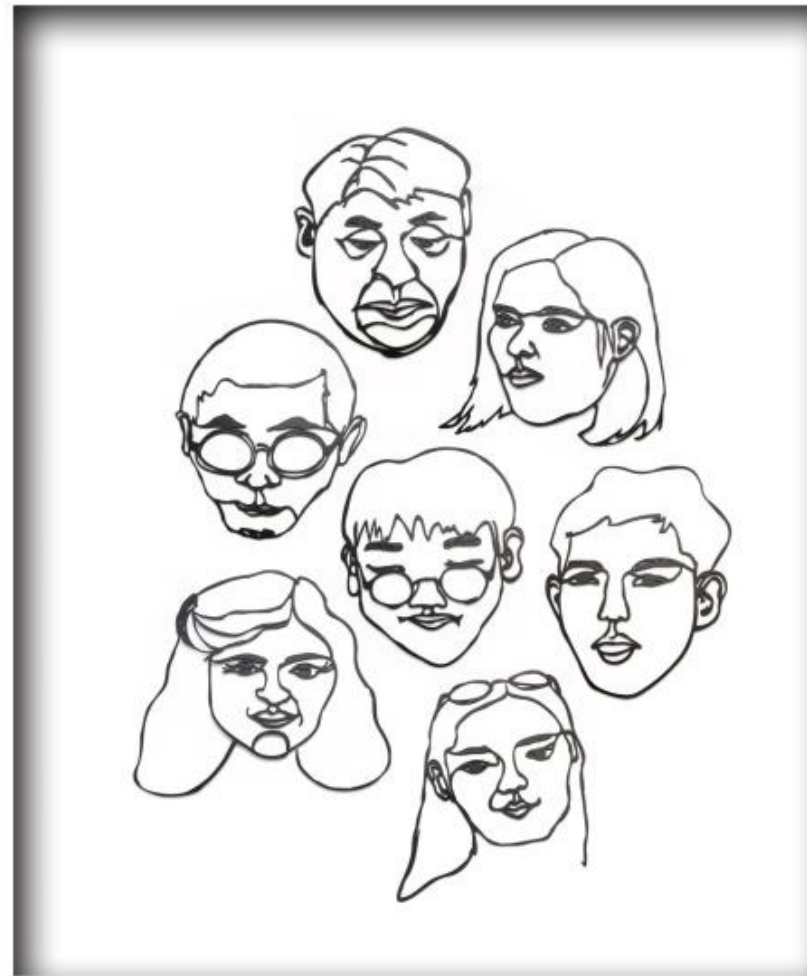
자꾸 바라보게 되는, 끌리는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와 닮은 모습 때문일까?

• 작품사진



face1\_object\_from\_000160000mm



## • 작품사진



작품명 : 얼굴얼굴얼굴들2 장르 : 장신구 (브로치) 재료 : brass, gold plated 크기 : 30X30X45mm 제작년도 : 2017

## • 작품사진



duplicity\_brooch  
sterling silver, garnet  
40X50X10mm



duplicity\_pin brooch  
sterling silver, iolite, Lapis lazuli  
20X60X10mm



duplicity\_pin brooch  
sterling silver, iolite, onyx  
20X60X10mm



exaggerated face1\_brooch  
sterling silver, jasper, jade  
15X60X10mm

exaggerated face  
brooch sterling silver, jade  
20X50X10mm

exaggerated face\_brooch  
sterling silver, Lapis lazuli  
20X60X10mm

exaggerated face\_pin brooch  
sterling silver, jade, agate  
20X60X10mm

exaggerated face2\_brooch  
sterling silver, jasper, jade  
15X60X10mm



작품명 : 이중적 얼굴, 과장된 얼굴 장르 : 장신구(브로치) 재료 : sterling silver, natural stone 크기 : 25X70X10mm  
제작년도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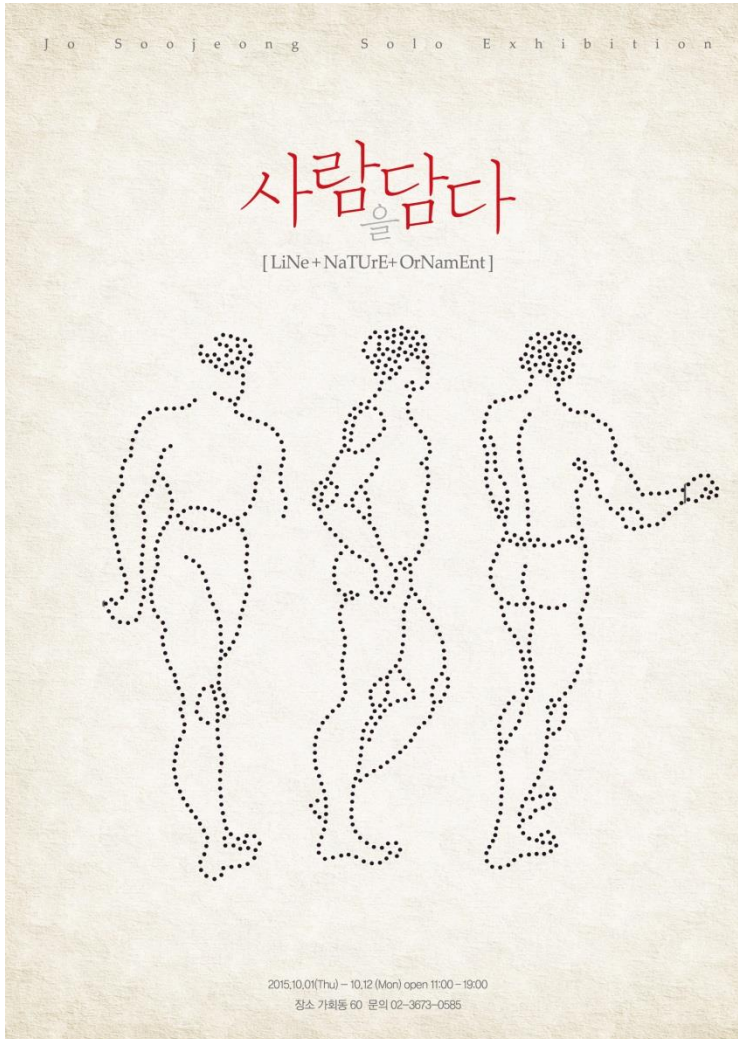
## • 작품사진

- ▶ face.face.face.  
\_ box\_ brass, gold plated, walnut  
\_ 90X90X3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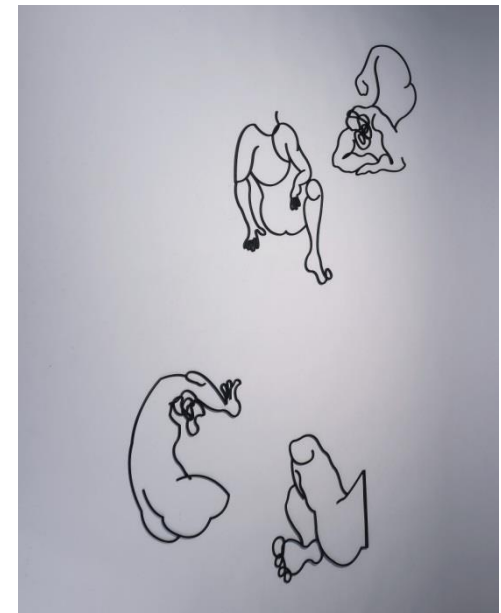
- ▼ eye. nose. mouth  
\_ jewelry box\_ sterling silver, gold foil  
\_ 40X40X40mm



• 2015 개인전 사람을 담다 [ LiNe + NaTuRE + OrNamEnt ]



일상 속에서 삶을 여유롭게 하는 물건,  
정갈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것,  
자연에 순응하며 무심한 듯 조화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처럼,  
일상에 스며든 물건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입니다.  
독특하지만 튀지 않고, 조화롭되 거스르지 않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마  
음에 얽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모습은 무궁무진 하지만 쌓여감이 있고, 억지로 힘  
쓰지 않는 질서가 있듯이 애써 마음을 소비하지 않는 평범함을 보편적  
실용가치로 표현합니다.



▶ 작품명 : 돌아가다  
장르 : 오브제  
재료 iron  
크기 : 450X350X5mm  
제작년도 : 2015

• 작품사진



작품명 : 당기다\_ furniture knobs 장르 : 인테리어소품 재료 : copper.brass 크기 : 30X30X4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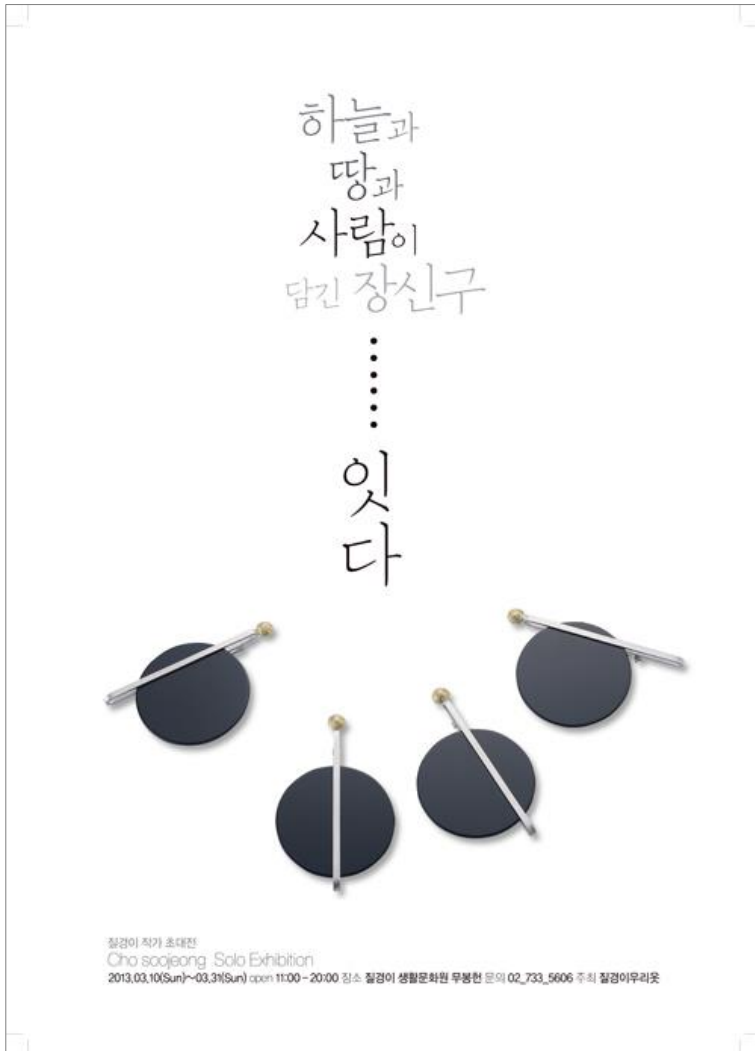
제작년도 : 2015

• 작품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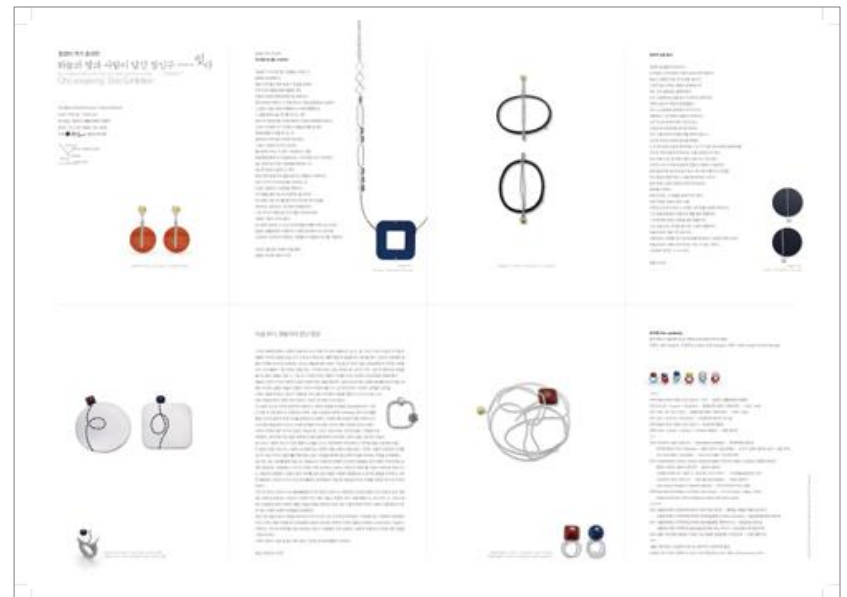


작품명 : 누르다 장르 : 문진 (paperweight) 재료 : iron.ottchil(natural lacquerd).copper 크기 : 35X55X10mm 제작년도 : 2015

• 2013 개인전 [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담긴 장신구....잇다 ]



전시 작업은 하늘과 땅과 사람,  
 자연의 근간이자 태극 그 자체인, 천지인을 표현한 연작이다.  
 ○은 하늘처럼 둥근 모양으로 해를 닮은 문이며,  
 □은 땅처럼 네모난 모양을 닮은 문이며,  
 △은 하늘과 땅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의 문이다.  
 하늘과 땅 선을 가진 장신구는  
 사람이라는 인체를 만나 장식되었을 때 비로소 조화된 전체가 된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지인 '○□△'이다.



• 작품사진



작품명 : 하늘땅잇다연작 장르 : 장신구 (브로치) 재료 : 스테링실버, 오톨, 24K금박, 옷칠  
크기 : 40X60X 10mm / 50X50X15mm 제작년도 : 2012

• 작품사진



작품명 : 하늘땅잇다연작 장르 : 장신구 (브로치, 반지) 재료 : 스테링실버, 소나무, 옷칠  
크기 : 60X70X 8mm / 30X30X35mm 제작년도 : 2012

• 작품사진



▲ 작품명 : 하늘땅잇다연작 장르 : 장신구 (브로치) 재료 : 스테리링실버, 옥, 재스퍼 크기 : 85X80X 15mm / 85X80X 15mm  
제작년도 : 2012

▼ 작품명 : 하늘땅잇다연작 장르 : 장신구 (반지) 재료 : 스테리링실버, 옥, 재스퍼, 레브라도라이트 침수정, 핑크오팔, 황옥, 레브라도라이트  
크기 : 25X25X35mm 제작년도 : 2012

## • 2011 개인전 [ LinE+NatURe+OrNAmEnt ]



### 천간을 담은 장신구 \_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설문(說文)에서 갑(甲)은 초목(草木)이 발아(發芽)할 때 겹질(莖)을 쓴 모양(形)을 본(本)떴(得)다고 하였다. 씨앗(子)이 발아(發芽)할 때 가장 먼저 뿌리(根)가 내리(下)고나서, 떡잎(子葉)이 땅(土) 위로 돌아(上)나는 모양(形)을 상형(象形)화한 것이다.

자연(自然)에서 천간(天干) 즉, 十干은 해(海)의 영향(影響)을 받는 가장 기초(基礎) 생물(生物)의 일생(一生)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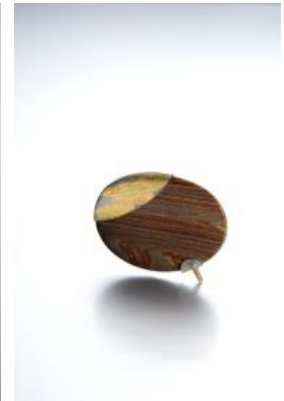
뿌리(根) 내리고, 올라(上)가고, 나오(出)고, 부쩍(부쩍) 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上) 음(陰)에서 양(陽)으로, 양(陽)에서 음(陰)으로의 순환(循環)은 자연(自然)의 커다란 조화(調和)와 조화(調和), 흐름( 흐름) 안에 상(象)으로 말(말)하였다.

우리(我們)에게 보여(보여)지는 문자(文字) 그것은 하나의 文(文)樣(樣)이었고 사물(事物)이었으며 자연(自然)이었다. 이번(이번) 작업(作業)은 자연(自然)의 이미지(이미지)화 작업(작업)을, 문자(文字)로 결정(決定) 되어(되어)진 틀(틀) 안에서 벗어나, 그것이 가진 자연(自然)의 흐름( 흐름)으로 표현(表現)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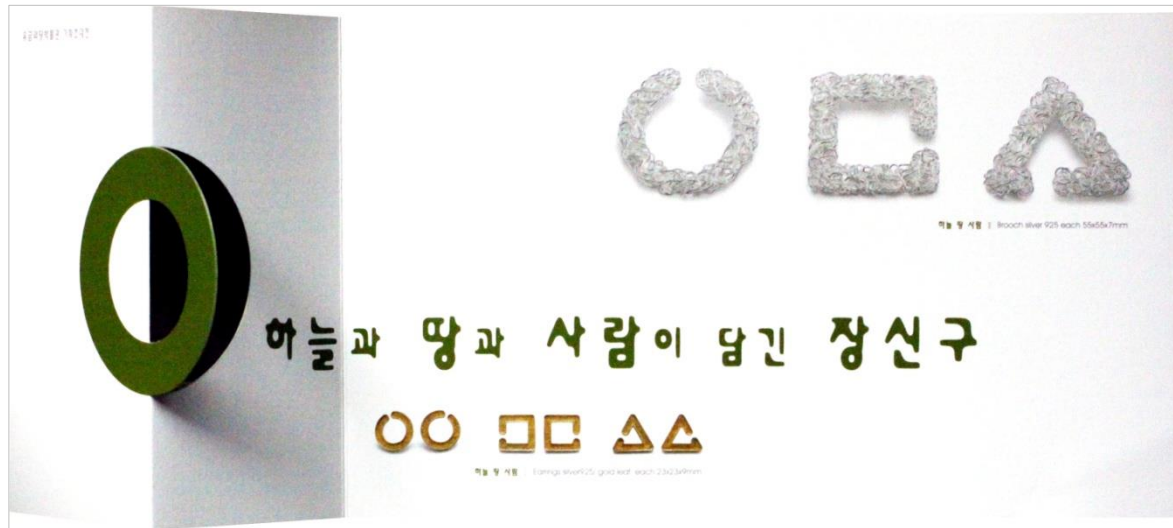
어떤(어떤) 것은 문자(文字) 같(같)기도 하고 어떤(어떤) 것은 그림(그림) 같(같)기도 하다.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자연(自然)의 상징( 상징)이다.



• 작품사진



• 2010 개인전 [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담긴 장신구 ]



드로잉 된 인체의 선들을 작업하다 보면 이전 크로키를 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선은 또 있을까?' 라고 느끼곤 한다. 얼마 전 여러 봄날들의 번덕으로 시기를 놓친 꽃들이 모두 한때 345월을 망라한적이 있었다. 자연의 원리를 보면 거스르는듯한 모습으로 이상한 징후였지만 한꺼번에 내 맘대로 그래픽을 가져다 놓은듯한 모습이였다. 그 안에서는 마치 내게 좀 잘 보라는 자연의 메시지처럼 하나하나의 아름다움들이 들어 있었다.

전시 작업의 테마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흉내내지 못하는 아름다움의 여러 모습을 보면 어찌 자연의 쓰임과 이치에 관련이 없겠는가? 못내 잊고 있었던 하늘과 땅과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도형으로도 보고, 또 이치를 담아 변화된 모습으로 장신구에 담아본다.

하늘은 모든것이 비롯되는것으로, 땅은 무엇이든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람은 그것에 조화된 것으로서 나타난다.

• 작품사진



작품명 : 사람연작 장르 : 장신구 (브로치) 재료 : 스테링실버, 그린가넷, 페리도트  
크기 : 50X40X 15mm / 50X50X 15mm 제작년도 : 2010

## • 작품사진



작품명 : 하늘, 땅 연작    장르 : 장신구 (브로치)  
재료 : 스테링실버, 라피스라즐리 크기 : 60X60X 8mm  
제작년도 : 2010



작품명 : 하늘땅사람연작    장르 : 장신구 (브로치)  
재료 : 스테링실버 크기 : 60X60X 8mm    제작년도 : 2010



- 작품사진



작품명 : 하늘땅사람 연작 장르 : 장신구 (브로치 겸 펜던트)

재료 : 스테링실버 크기 : 35X35X 15mm 제작년도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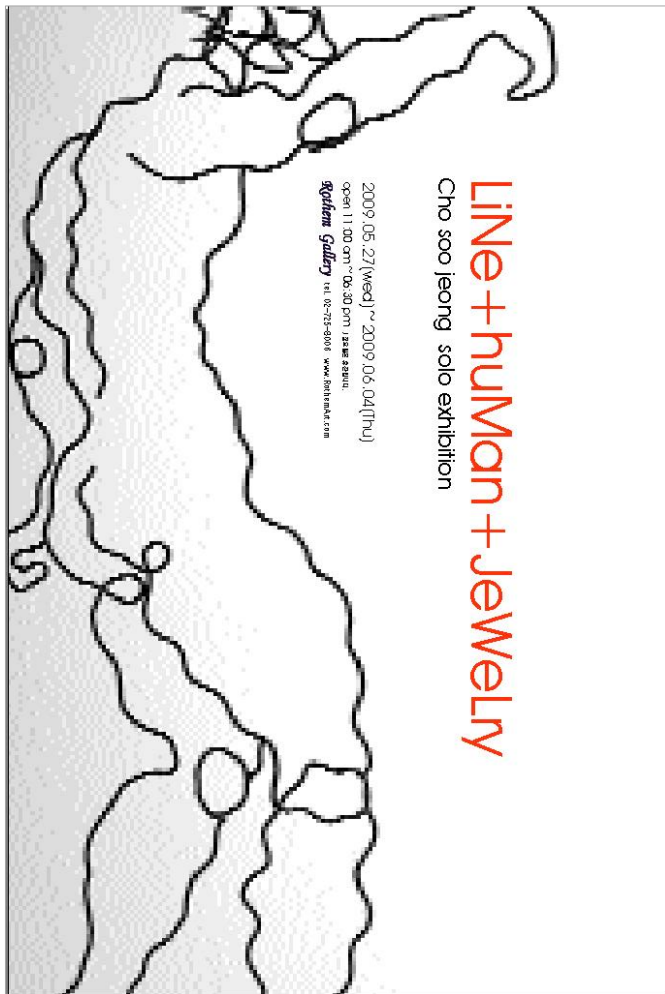


작품명 : 하늘땅연작 장르 : 장신구 (브로치)

재료 : 스테링실버, 산호 크기 : 70X35X15mm 제작년도 : 2010



- 2009 개인전 [ LiNe +\_ huMan +JeWeL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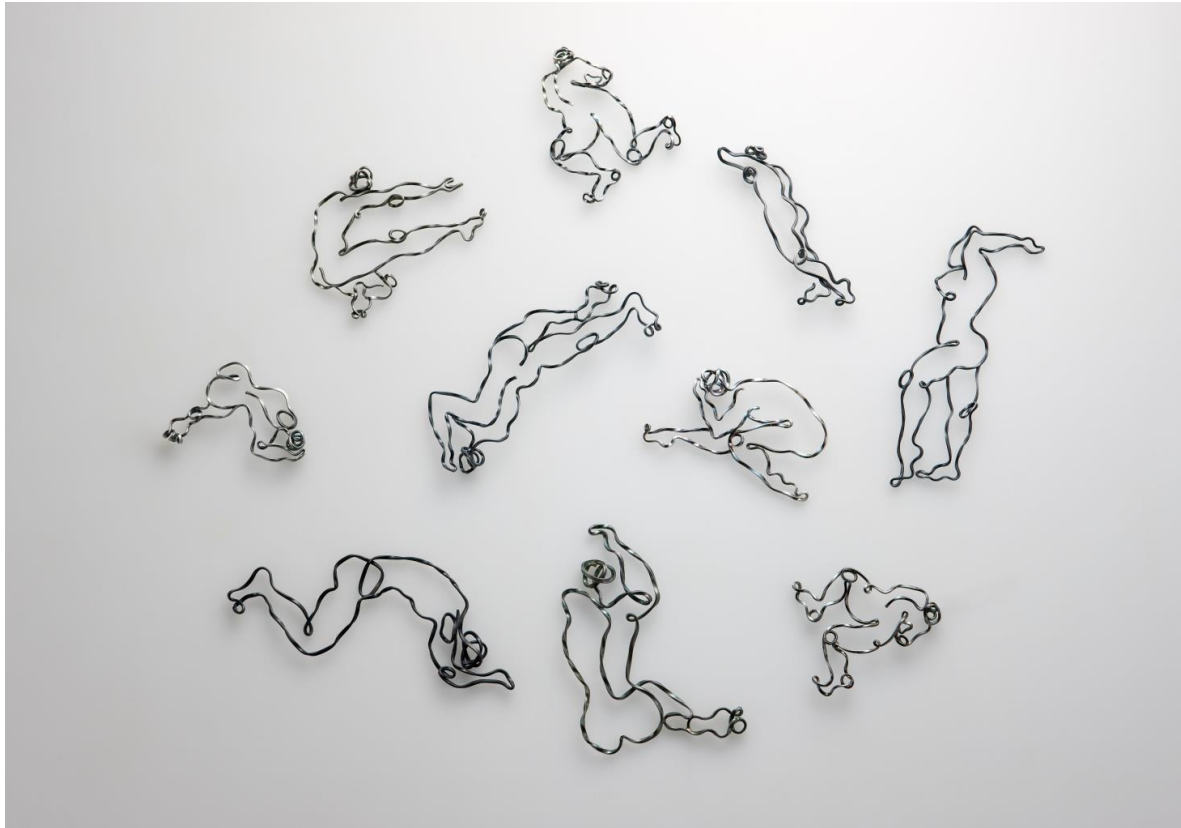
## Drawing of the space

나의 작업은 매번 보여지는 기존 작업인 드로잉의 연작이다. 단숨에 간략한 선으로 그려지는 크로키의 선을 보여준다. 이는 주변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드로잉 선을 나타내어 종이의 틀을 비워내고 더 나아가서는 공간을 활용한다. 선이라는 표현요소를 금속이라는 매체를 통해 제한적이기도 반 제한적이기도 한 공간에 표현함으로써 통해보는 이에게 투영되어 인식되고, 동시에 빛으로 인한 '겹쳐지는 형태의 가변과 연결된다. 즉 인체라는 배경에 그려지는 선으로 표현된다.



작품명 : Drawing 01 장르 : 장신구 (핀 브로치) 재료 : Sterling silver, enamel wire, pine wood 크기 : 25X20X10mm 제작년도 :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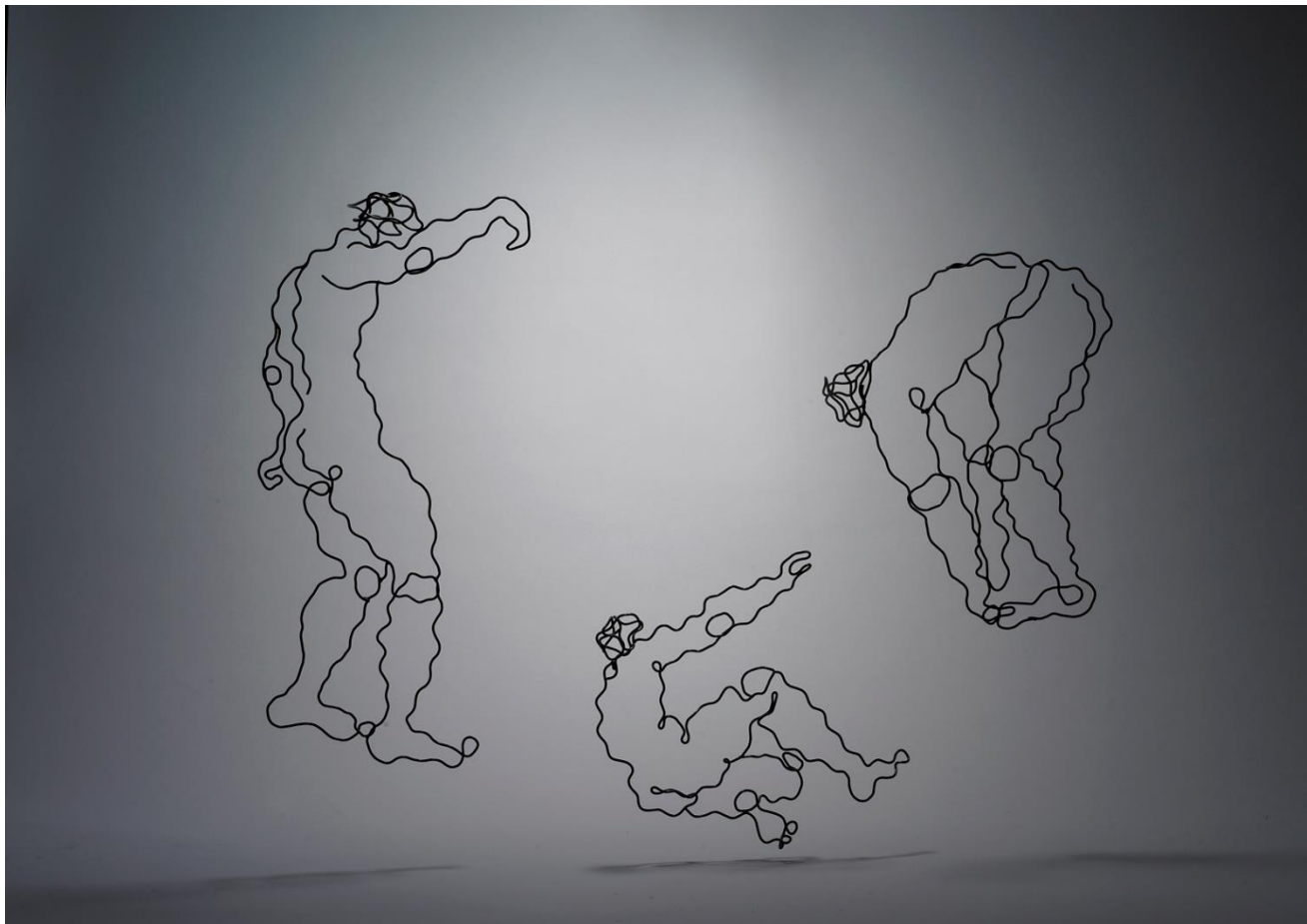
• 작품사진



▲  
작품명 : Drawing 01 장르 : 장신구 (브로치, 펜던트)  
재료 : 스테링실버  
크기 : 가변크기 제작년도 :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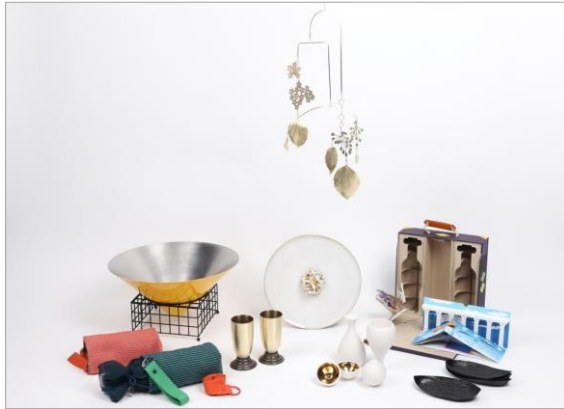
▶  
작품명 : Drawing 01 장르 : 장신구 (핀 브로치) 재료 :  
Sterling silver, enamel wire 크기 : 25X20X10mm 제작년  
도 : 2008

- 작품사진



작품명 : Drawing 01 장르 : 가변설치 재료 : 철 크기 : 60X130X 15mm 제작년도 : 2008

• <원 앤 모어\_선물하고 싶은 공예> \_코사이어티 서울\_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_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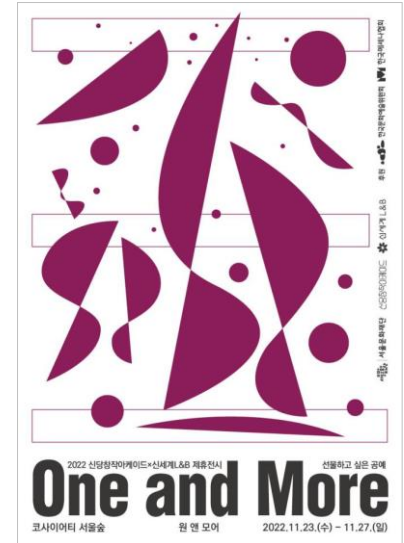
주류유통전문기업 신세계L&B의 후원으로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4년째 진행하고 있는 테이블웨어 특화 공예상품개발사업의 결과 전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 들었던 1인 위주의 생활에서 벗어나 나에게서 우리로 확장된 새로운 일상의 문화를 담아내고자 한 이번 제휴전시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공예'로 마음을 전하며 함께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작가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작업으로 지속하며 소형작업에 표현하고자 하였고, 이는 이전 [하늘과땅과사람을담다] 시리즈 데코레이션으로 [품어주는궁궐, 보드라운뜰]을 발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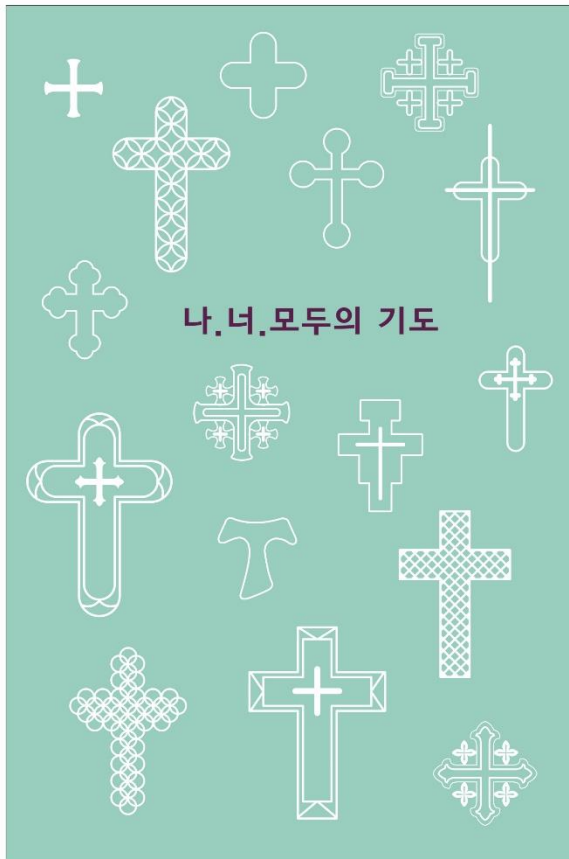
• <가르치는 예술가 초점 初點> \_아라아트센터\_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_ 2022

예술강사 즉 '가르치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에 집중하여 예술가 본연이 모습과 예술적 세계관을 담아낸 다양한 '초점(初點)'의 작품들로 기획된 전시로 colress face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 • 성물전 [ 나. 너. 모두의 기도 Me. Vos. Omnes Orate ] \_명동성당1898gallery \_ 2022

“성물 ” 전시는 금속공예가 2인 창작자의 심미안을 통해 바라보는 종교적 메시지를 감동적 요소와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 나. 너. 모두의 기도 Me.Vos. Omnes Orate

‘존재를 가지고 있는 고뇌’  
간절하고도 애절하고도 곱겹의 바람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들을 담으며  
감사어린 침묵의 기도를 한다.



없음과 있음\_ Brass, Gold plated, Picture Jasper\_ 68X30X55mm

조수정 성물전

전시일자 2022.4.13-4.19 OPEN 10am-6pm 화10-12 전시장소 gallery 1898

형에 종교성이 함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유의미한 것들, 인간의 존엄성, 사랑과 믿음, 희망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치를 시각화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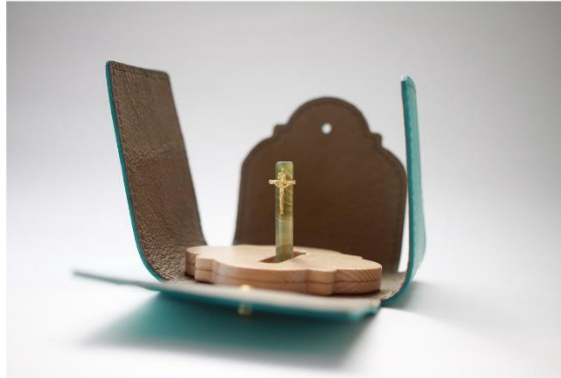
현대사회에서의 보편적 가치와 실천을 표현하여 은총과 고귀함으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작품을 통해 하나됨을 표현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이념을 초월하여 인간애를 지향하는 마음을 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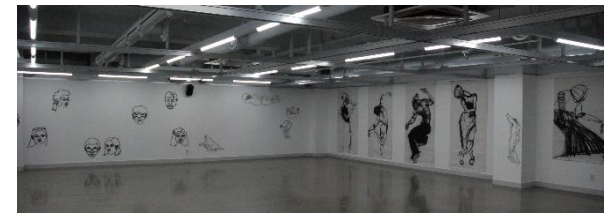
• 작품사진



• 작품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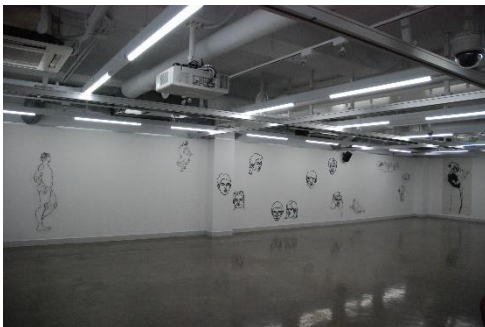
• 조수정 김지애전 [ CURVE ] \_Gallery We \_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_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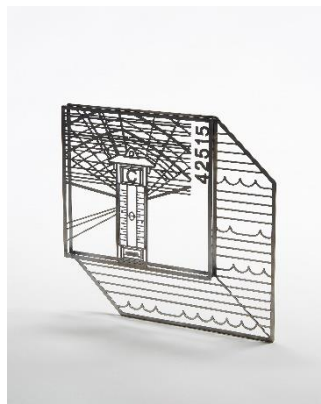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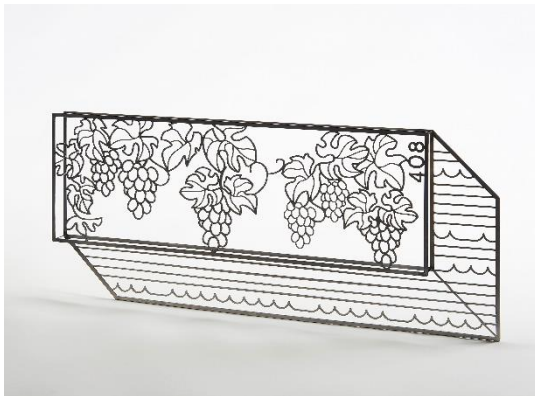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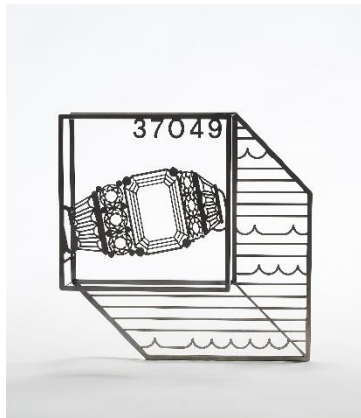
사람을 선으로 표현하는 시각예술가 2인전이다.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작가 김지애와 조수정은 곡선이라는 제목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작품들을 이야기하고 표현한다.

다른 매체로 표현되는 사람은 작가의 시점에서 표현되고 그것은 관람자에게 각각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볼 수 있다.



• 작은미술관 보구곶 기획전시 [ 보구곶 사물전 ] \_김포문화재단 \_ 2018



월곶면 보구곶리는 북쪽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휴전선 넘어 황해도가 보이는 곳이다. 이 특별한 지역에 발을 내디뎠을 때 '다르다'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메우고 있었나 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두런두런 나눌 때는, 그저 주변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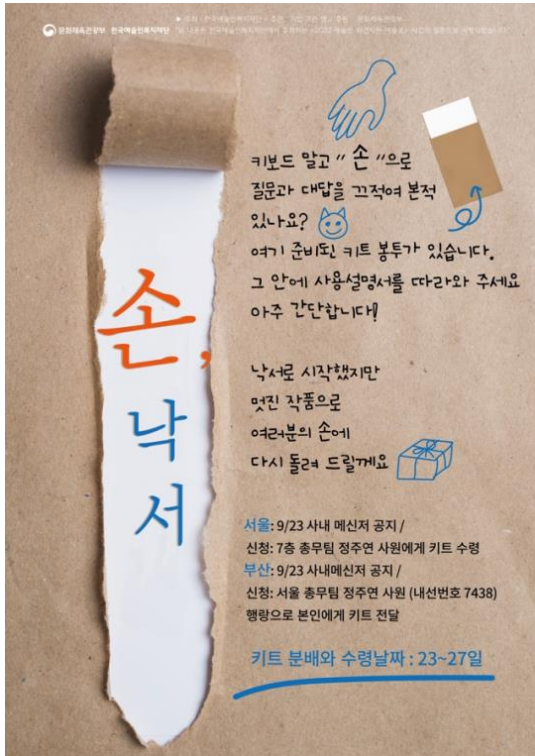
이모 삼촌 세대가 자녀들과 삶을 일궈내는 특별할 것 없는 평온한 사람 이야기였다. 강화의 서울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반지가 있고, 사진과 기록들이 있고, 동네 사람들과 다 나누어 먹어도 될 만큼의 마당 한가운데 펼쳐진 주렁주렁 포도가 있고, 비닐하우스에 무심히 걸린 온도계가 있다.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삶의 소리를 듣고 눈으로 담아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분들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추억이 담긴 것은 무엇일까 누구나 봐도 알만한 그분들의 기호는 무엇일까를 같이 꺼내보면서 일부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주)세정X예술인 협업프로젝트 \_ [손낙서] [손에세이] [저마다의빛] \_ 예술인복지재단\_ 2022

자세히 보면 손모양도 얼굴이 다르듯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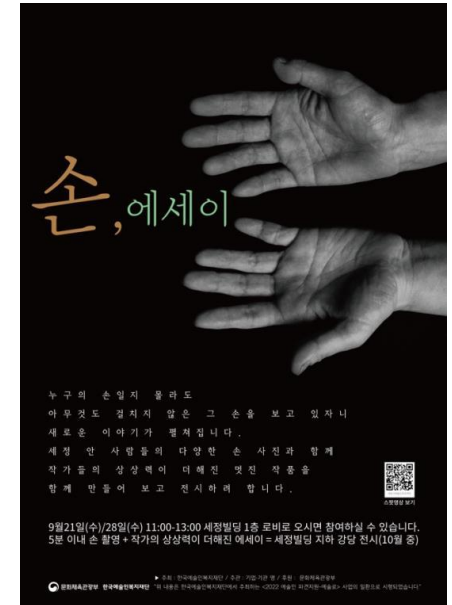
예술인과 기업과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개인이 모인 회사라는 공간에서 바라본 [손]입니다.



낯선 이와 첫 만남을 할 때 타인을 먼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그러나 악수를 통해 타인의 온기를 느끼고 나면 나와 같은 체온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각은 타인을 인식하고 손의 접촉은 타인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역사는 그 사람의 손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의 목표에서 창작자는 일의 중심 "손"을 바라봅니다. 빌딩 속 수백 명의 사람, 직급, 역할을 손으로 작가인 타인이 기록하여, 서로에 대한 새로움과 호기심, 손이 가진 이야기로 예술적 공감대를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며 잠시 쉬는 손, 다른 일을 하는 손,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사라져가는 손끝의 흔적을 나만의 흔적으로 남기고 그 속에서 뜻밖의 발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이 연결과 관계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읽어내고 얼굴을 표현한 작업에 연장되어, 특정 계층의 인물들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다른 매체로 전시했던 작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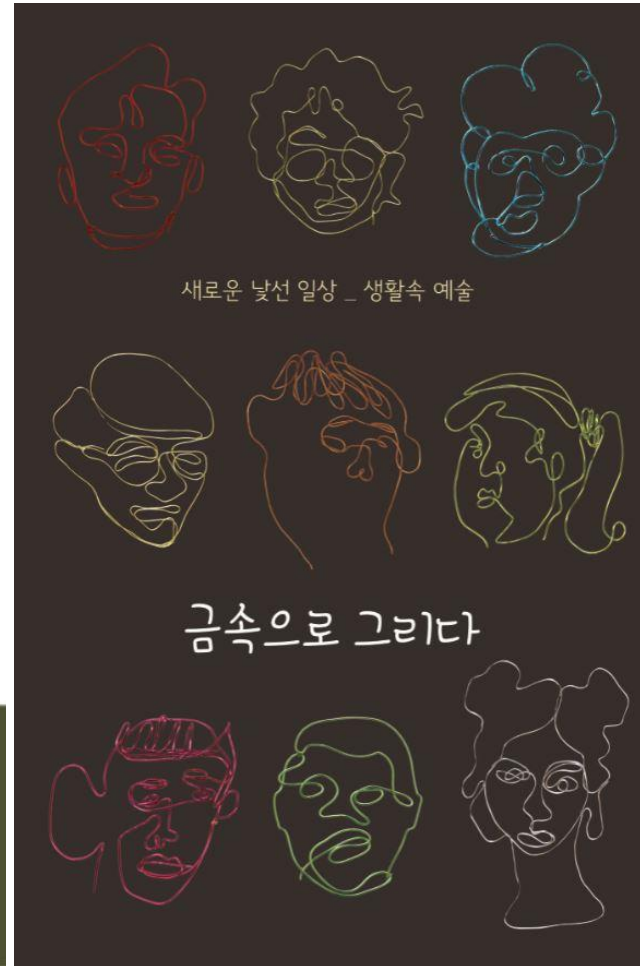


##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_ 새로운 낯선일상 \_ 생활속 예술 \_강북문화재단\_ 2020

시각예술가 2인과 미디어아트작가와의 협업 프로젝트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작가의 작업방식대로 키트로 작업하고 온라인 아트 챌린지를 통해 전시를 합니다.

각자만의 대상을, 각자의 눈으로 세심히 바라보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그 모습들을 자신만의 방식대로 예술적 감수성으로 표현하며, 더불어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과의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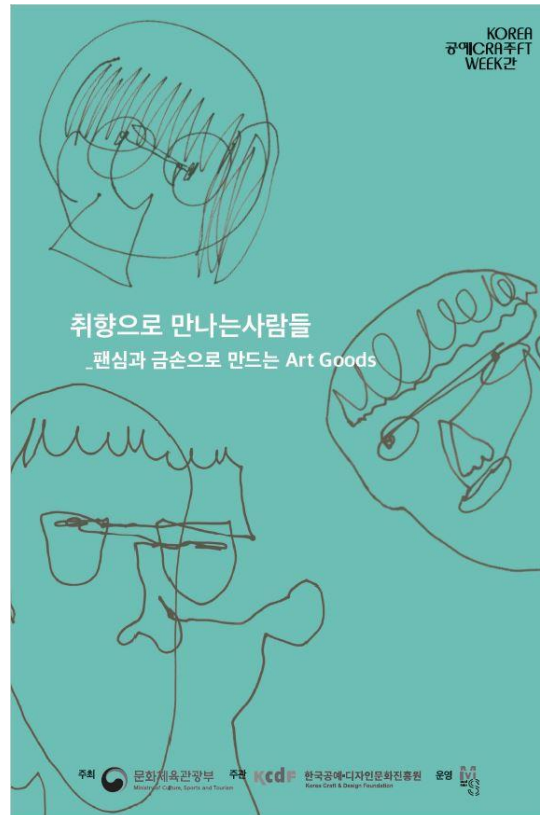
작가는 전시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 대신 작가와 하루 위크숍처럼 참여한 대중의 챌린지로 또 다른 전시형태를 기획하였습니다



## • 공예주간 기획 프로젝트 \_ 취향으로 만나는 사람들 \_ 팬심과 금손으로 만드는 Art Goods\_KCDF\_2020

스타들과 영화의 상징 층무로, 관광의 명소 중구의 지역 특성을 살려 한류문화 관련 콘텐츠로 시민 누구나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금속공예 작가들과 함께 금속 오브제 작업을 하는 제작기반 워크숍으로 공예주간 2020 기획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주최·주관 장소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메탈살롱 / 이음



• 연구. 예술적 리서치 \_ 청소년 인문예술교육 <예술로 함께> \_ 서울문화재단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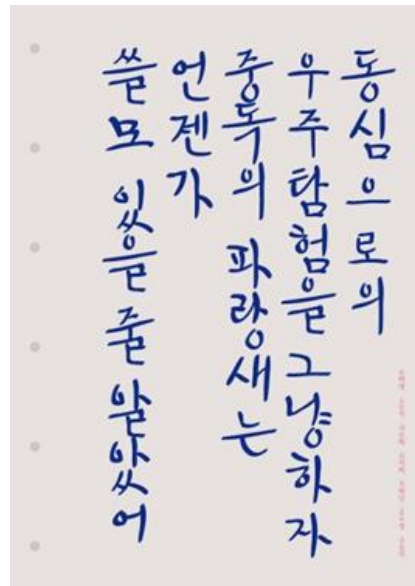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학습모임>

예술로 함께는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학교에서 수행한 통합예술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로 상반기에는 청소년 예술가 교사 7인의 자발적 학습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자료수집, 토론하고 연구 결과집

[동심으로의 우주탐험을 그냥하자 중독의 파랑새는 언젠가 쓸모있을줄 알았어]를 엮었습니다.

연극, 시각, 음악분야의 예술가들이 연구모임으로 만들어낸 질문들을 인문 창의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고 중학교에 예술가로 파견되어 수행하였습니다.



- 연구. 예술적 리서치 \_ 청소년 인문예술교육 <예술로 함께> \_ 서울문화재단 2017. 2020

예술로 함께는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학교에서 수행한 통합예술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서울내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 예술프로그램으로 통합장르 즉 무용, 공예, 미디어 분야의 예술가가 모여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중학교에 예술가로 파견되어 수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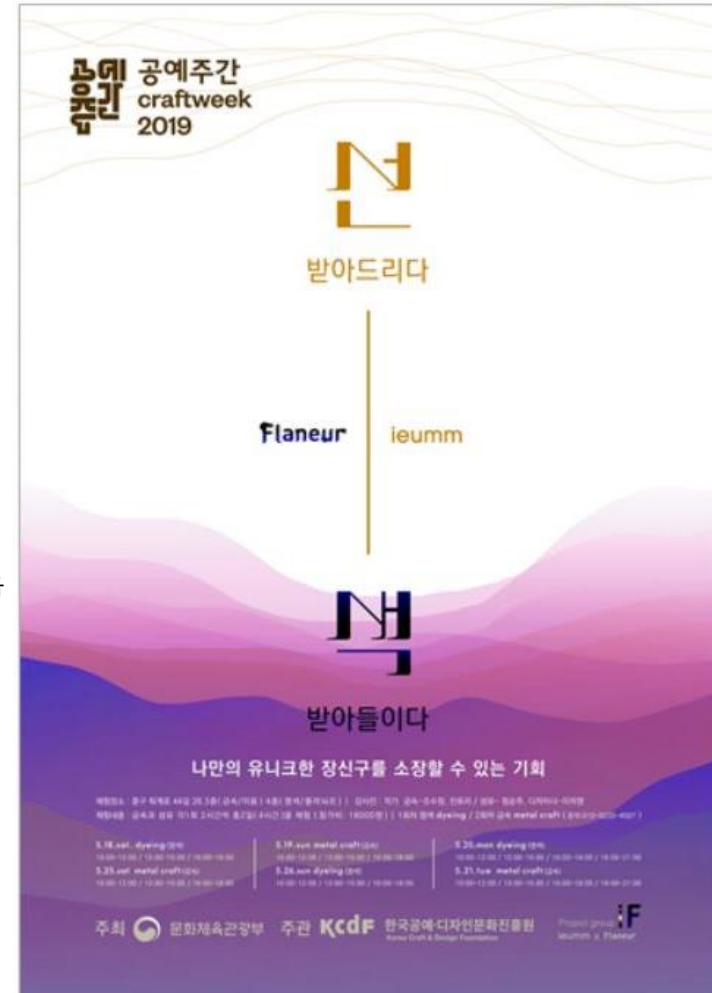
• 공예주간 기획 프로젝트 \_ 색을 받아 들이다. 선을 받아 드리다\_ KCDF\_ 2019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중구지역 공예주간 2020기획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작기반 워크숍입니다. 섬유공예 작가와 금속공예 작가가 타 공예분야간의 협업을 통한 결과물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작가의 작업 방식대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공예품에 대한 안목을 공유하여 확대하고자 하여 기획하였습니다.



주최·주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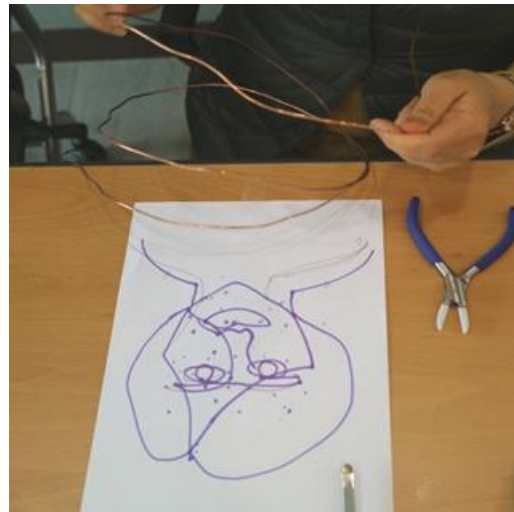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프로젝트그룹이프 /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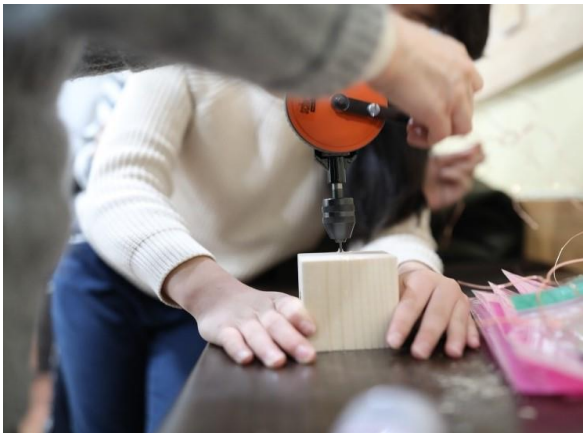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_ <월곶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 \_ 김포문화재단/월곶생활문화센터 \_2019

시니어들의 여가생활에 새로운 문화예술의 경험과 참여를  
권한 프로그램입니다.

생활반경이 적어진 세대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손주들과의 놀이도구, 나와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금속조형물, 가족 문패 작업을 통해 주변 관계를 위한  
제작기반워크숍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_ <구석구석움직이는경기공방> \_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지역아동센터 \_2019



• 예술교육 프로젝트 \_ <금속으로그리다> \_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_2018



##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_ <새쓰임 금속공예> \_ 이모저모도모소/ 광명문화의집 \_2018

새쓰임 시니어 프로그램은 나이듦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제작기반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70세이상 할아버지들을 주 참여자로 사회안에서 활동의 폭이 좁아진 세대의 문화를 개발하는 제작기반 워크숍입니다.

광명문화의집 이모저모 시니어 문화예술 프로그램 | 새쓰임 제작기

활아버지와 함께 하는

# 새쓰임

# 금속공예

4월 27일 (금) / 5월 4일 (금)  
5월 11일 (금) / 5월 18일 (금)  
5월 25일 (금) / 6월 1일 (금)  
10:00~13:00  
1층 커뮤니티공간 '오픈키친'

제작강사 | 조수정 금속공예가  
진행 | 이웃상회

이모저모 시니어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소셜 아티스트 그룹 <이모저모 도모소>가 광명 문화의 집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을 모시고 나이듦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제작 기반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새쓰임 제작기>는 지역 주민 중 특히 70대 이상 할아버지들을 주 참여자로 모여 사회 안에서 활동의 폭이 좁아진 이 시대 아버지들의 놀이문화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금속재료, 특히 할아버지들이 자주 애용하는 맥주 캔 등을 활용해 손주들을 위한 장난감 등 새로운 쓰임으로 재활용하는 금속공예 기반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_ [ 창의 교대 ] \_ 이모저모도모소 / 안산문화재단 \_ 2017

안산스마트허브의 문화재생사업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안산공단에 재직중인 직원과 가족들이 참여자로 안산공단에서 생산해 폐기되는 재료를 활용한 제작기반 워크숍

**창의교대**

2017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커뮤니티 프로그램— 예술플이

NO GOODS — LOCAL BRANDING PROJECT 사전 창·제작 워크숍

이 프로그램은 <NO GOODS—로컬 브랜딩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전 창·제작 워크숍입니다.

**기간**  
9.13 수 19-21시  
오리엔테이션, 이웃상회 소개, 아이디어 스케치 — 이웃상회  
9.20/27 화 19-21시  
10.10/17 수 19-21시  
손바느질, 필트 — 황세숙 강사  
10.24-11.14 수 19-21시  
세쓰임 금속 공예 — 조수정 작가  
11.21 화 19시-21시  
작은 발표회 — 이웃상회

**장소**  
안산산업문화창작소  
오시는 길  
안산산업문화창작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48  
공민자활해관빌딩 2층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건너편 푸드윙가 14, 2층

**신청 및 문의**  
수시 모집 · 참가비 무료  
emdenner6@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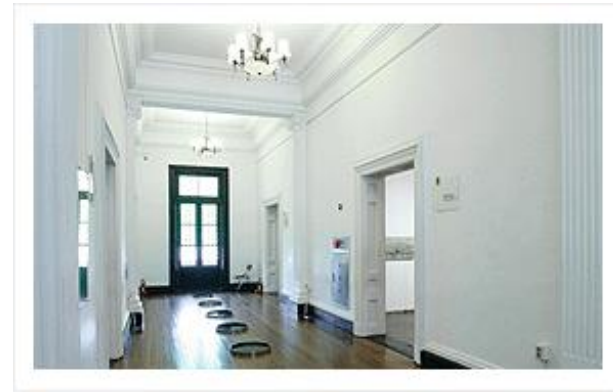
**주최·주관**  
안산시·안산문화재단 기획  
이모저모도모소

이모저모도모소  
안산문화재단



• 예술교육프로젝트 \_ 미술관 <시민미술아카데미> \_ 서울시립미술관 \_ 2014 ~2016

시민미술아카데미는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강사로 활동 미술관에서 깊이있는 재료의 물성체험과 그에 따른 표현방법을 작가의 방식대로 그려내고 이해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



금속공예

시민미술아카데미



SeMA LEARN

생활미술 실기강좌

장인정신!

금속공예

SeMA LEA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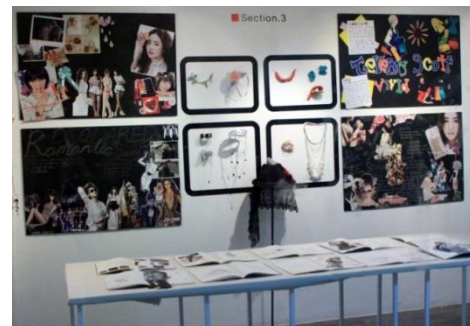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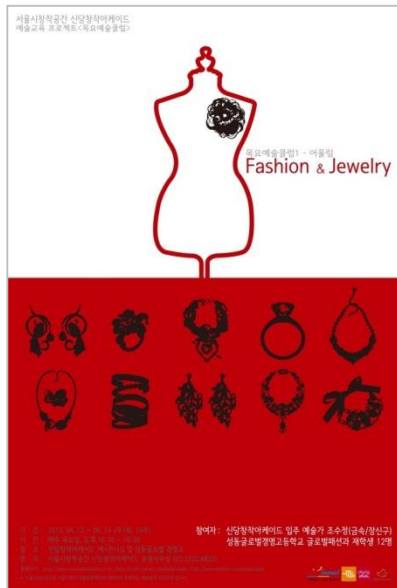
생활미술 실기강좌

나 도  
금속공예품  
예술가

## • 예술교육 프로젝트 \_ <목요일예술클럽> \_ 어울림 [ 패션 & 장신구 ] \_2012

목요일예술클럽은 청소년 예술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근지역 특성화고 패션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술교육 프로젝트 입니다.

금속과 의상이 어우러져 만드는 패션장신구는 서로 밀접한 분야의 경험과 표현수업을 통해 창의성 있는 협업 디자인과정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기획하고 경험하게 하는 예술 융합 수업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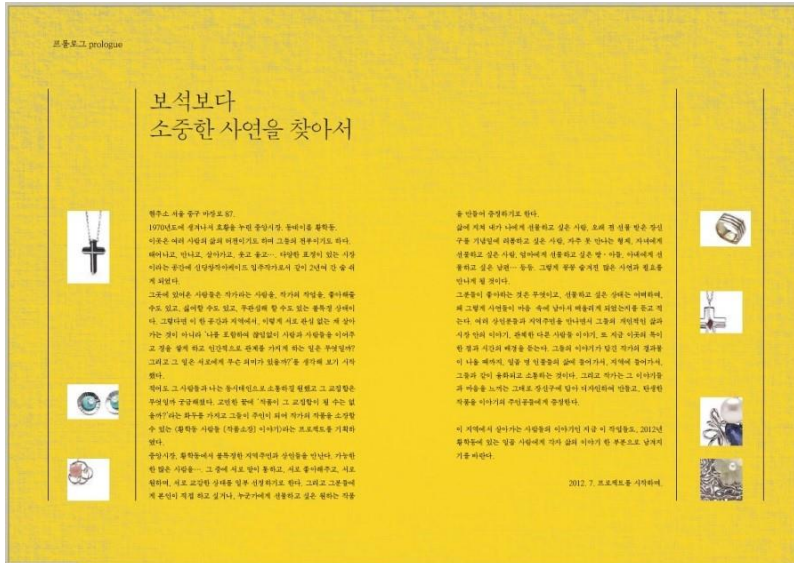


• 프로젝트 \_ 황학동 사람들 이야기 [작품소장이야기] \_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창작지원 선정사업\_2012

중구 황학동 119번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그 지역 주민과 상인과 함께한 작업입니다.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매개체로서 작가의 장신구가 역할을 하여 그들에게 사연이 담긴 장신구를 만들어 선물합니다.

황학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작품소장의 기회를 마련한 프로젝트





## • 공예 트렌드 페어 2015 \_ 손에 담긴 미래

“ 작가는 인간과 자연의 외면적인 재현보다, 내면의 화음을 모색해온 금속공예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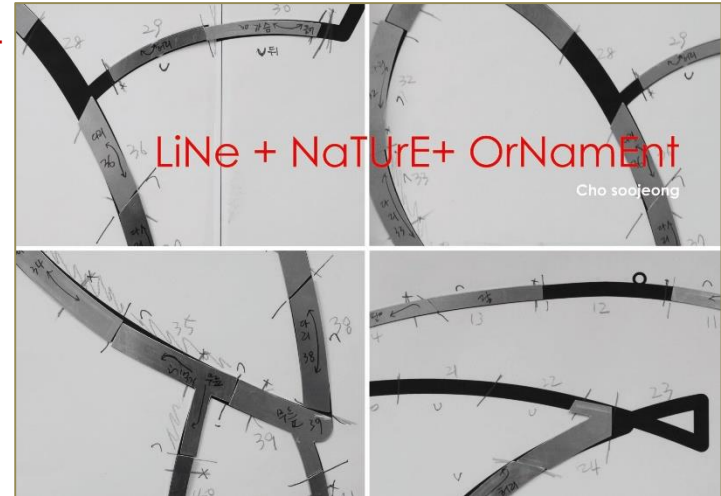
작가는 데뷔 초기에 철사 조형으로 인체의 선을 드로잉 해 보여준 <Drawing> 시리즈를 통해, 인체의 형태와 움직임이 빛어내는 선의 아름다움으로 인간의 실존적 존재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 [ 주제관 - 반복 그리고 다름 ]\_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_ 2014

**핸드메이드는 핸드에이드이다**

어쩌면 신의 위대함은 똑 같은 사물을 만들 수 없는 무능함에 있는 지도 모른다. 신은 창조하고 인간은 제작한다. 창조는 신의 권능이지 인간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예가는 감히 신을 흉내 내고자 한다. 제작을 통해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고자 한다. 신의 손 끝에서 사물이 탄생되듯이 공예가의 손 끝에서 사물이 하나씩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물은 손의 다름만큼이나 다르다. 이것은 창조에 가까운 제작이다. 하지만 창조는 결코 인간에게 허용된 일이 아니기에, 그것은 두뇌가 아니라 손의 기억을 통해서만 가까스로 다가갈 수 있을 뿐이다. 창조에 가까운 제작은 손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핸드메이드(Handmade)는 핸드에이드(Handaid)이다.



# Artist

**Artist** \_ Metal Craft

**Jo soo jeong**

zoss77@naver.com